

# 디지털사진 시대, 전자CD 및 DVD앨범의 활용

현대는 멀티미디어 시대라고도 하고, 3D시대라고도 한다. 고객은 감동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어느 업종이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요즘 신세대는 장편 소설을 즐겨 읽지 않는다고 한다. 빠르고 간편한 것을 원한다. 이는 신세대들이 광고 CF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진을 찍고 보는 데는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 찍은 것을 컴퓨터, TV 등 일반 대중 매체를 통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보려고 하지 않는다. CF, 뮤직 비디오처럼 보려고 한다. 보다 전문성이 있으면 뽀샵과 같은 편집을 보려고 한다. 그것이 현 세대의 특징이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쉽고 편하고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자CD앨범과 DVD앨범이 주목받게 된 이유이다.

글/㈜그리심애텍 대표 백학중



## 디지털 사진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사진시장의 현 주소

고객 니즈와 사진시장은 끝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사진시장의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흐름은 어제 흥하던 기업들이 오늘은 망하는 식으로 사진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필름 하나를 사려면 여러 곳으로 발품을 팔고 다녀야 할 정도로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 아울러 사람들은 필름(아날로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나 찍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어느새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은 '아날로그 카메라는 낡고 진부하다'는 생각이 예술성을 짓밟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이젠 '사진관'이란 말조차 진부하다. 저마다 '스튜디오'란 간판을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사진시장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사진인들 스스로가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로의 변화는 디지털이나, 아니면 아날로그냐 중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로의 무조건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사진업을 그만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극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무엇이 디지털인가?

사진기를 디지털 사진기로 바꿨다고 디지털로의 변화가 끝나는

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디지털 사진이나 아날로그 사진이나 인화해 보면 동일하다. 고객은 무슨 사진기로 찍었는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는 컴퓨터를 능숙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무조건 사놓고, 이제부터는 컴퓨터에 대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사진의 디지털화는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거시적으로 스튜디오의 내적·외적으로 현대적 디자인의 변화를 요구하고, 미시적으로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쁘샵' 과 같은 사용법을 익혀야 하며, 나아가 고객용 디지털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고객용 디지털 제품의 하나인 전자CD앨범과 DVD앨범에 국한하여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 디지털 사진시대, 전자CD앨범과 DVD앨범의 필요성

현대는 멀티미디어 시대라고도 하고, 3D(삼차원, 입체형) 시대라고도 한다.

한때 비디오가 나올 때 사람들은 곧 영화관이 망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가 되었다. 왜인가? 비디오는 영화관처럼 느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객은 감동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어느 업종이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요즘 신세대는 장편 소설을 즐겨 읽지 않는다고 한다. 빠르고 간편한 것을 원한다. 이는 신세대들이 광고 CF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진을 찍고 보는 데는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 찍은 것을 컴퓨터, TV 등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보려고 하지 않는다. CF, 뮤직 비디오처럼 보려고 한다. 보다 전문성이 있으면 뿌샵과 같은 편집을 해서 보려고 한다. 그것이 현 세대의 특징이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쉽고 편하고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자CD앨범과 DVD앨범이 주목받게 된 이유이다.

## 전자CD앨범과 DVD앨범의 필요충분 조건

고객 감동을 유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샵의 체면만 구겨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진관을 고급스럽게 스튜디오라고 한다. 스튜디오의 엄밀한

의미는 무엇인가? 방송국의 연주실, 영화촬영실도 스튜디오라고 한다. 스튜디오는 그만큼 복합적이다. 단순히 사진만 촬영하고 제공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스튜디오는 아니다. 사진에 관한 총체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주저앉아 포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몇 가지 기본 조건을 나열하겠다.

1.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3. AS와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공개 소프트웨어를 능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고객 90%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적어도 상기한 조건 중 2개 이상이 결격이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스튜디오에서의 활용

스튜디오는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몇 만원의 제작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별성이다.

“저 스튜디오에 가면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인식을 고객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 결론 : 3D-Album의 활용

자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3D-Album은 미국 MRII에서 지난 10년 동안 개발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점은 [www.my3dalbum.co.kr](http://www.my3dalbum.co.kr) 참조) 자사는 이를 한글화하고, 한국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적인 전자CD, DVD앨범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 많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류하고 있다. 지금은 학교나 일반인들의 구매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스튜디오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그 격을 다르게 할 예정이다. 지면을 빌어서 힘

